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 일 환



막장과 반전이 있다. 사건의 전개는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 선인에서 악인으로의 추락은 철이다. 전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심판만이 존재한다. 러시안 룰렛처럼 어찌나 한번 리듬면 한방에 흑간다.

영화나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요즘 인터넷에서 펼쳐지는 막장 드라마는 접입가경이다. 최근에는 SNS의 가세로 날개를 달았다.

네티즌들은 이슈에 뜻겁게 달아오르는 성질이 있다. 이슈가 떠오르면 한순간에 퍼나르기를 통해 각종 포털을 넘나들며 카페 게시판과 블로그를 도배해 버린다. 어느 순간 'O>N>N', 'X>N>N' 하며 이를 풀고 물든다. 이슈 인물의 신상이 털리는 순간이다. 이를하여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한순간에 개인 정보가 적나라하게 밝혀진다. 그 다음은 악플공격이다. 진실의 유무는 그들의 뜻이 아니다. 아무런 죄의식도 없다.

죄의식 없는 인격 살인

빨리진 인터넷 속도만큼 심판도 초스피드다. 인민재판 하듯 악플의 파상공세를 펼친다. 심판의 마지막 단계는 인격 살인이다. 이슈 당사자나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뜨려 버린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임신부 폭행녀' 사건을 보자. 사건의 발단은 33세의 임신부가 한 포털에 올린 글이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임신 6개월의 임신부가 전안의 채선당한 매장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작은 말다툼에 휘말려 종업원으로부터 배를

네티즌이여! 마녀사냥을 멈추라

차였다다는 것이다.

글을 본 사람이라면 피가 끓을 수밖에 없다. 네티즌도 끓어올랐다. 온라인과 SNS 세계를 강타했다. 네티즌들은 이를 무차별로 퍼나르기 시작했다. 한순간 채선당과 가해자로 지목된 종업원은 과편처 범이 됐다.

하지만 CC-TV가 공개되고 경찰이 수사에 학수하자 넷세상의 여론은 급반전한다. 임신부 폭행이 과장된 것이고, 오히려 임신부의 태도가 오만불손했다는 기사가 전력으로 짚수하다 일어난 사고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퍼나르기에 급급한 네티즌들이 제대로 사실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또 마녀사냥을 하려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성방과 질서로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여러동질해 하고, 심지어 자신의 계시를 을 삭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찌라, 이미 채선당 종업원은 출지에 몰입치한 폭행범이 되어 버린 것을.

이 사건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임신부가 다시 폭행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는 이미 두 사람은 넷세상의 여론에 의해 단죄되고 재기 불능이 될 정도로 인격적으로 무너졌다.

또 다른 케이스인 국물녀 사건은 어떠한가. 사건의 개요를 잠시 설명하자면 이렇다. 한 어린이가 화상을 입은 자극적인 사

이쯤에서 네티즌의 부분별한 정의감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쪽 말만 듣고 선불리 판단하는 오류를 조심해야 한다. 어떤 말이든 양쪽 모두의 주장을 들어봐야 한다. 사실 양쪽 말을 다 들어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한쪽 말만 듣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합리적 의심이 어려운가

정말 진실에 근접한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다. 퍼나르기라는 무감각한 행위가 진정한 정의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숨어서 들끓고 비난하는 것도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

그 점에서 선율 전도사를 자처하는 진상훈 이지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제안한 네티즌 행동강령은 합리적 의심을 실천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 첫째는 남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계시글을 함부로 퍼나르지 말라는 것이다. 민양에 퍼나르더라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사설인 경우에만 해야 한다.

두번째, 아무리 범죄자라 할지라도 남의 초상권과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진·동영상·신상명세'는 올리지 말아야 한다. 이는 법률적 권리에 위임된 사법기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남비처럼 끓어오르는 조급증에 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은 한순간에 파괴되고 만다. 네티즌들이여! 한 번만 키보드에서 손을 내려놓고 생각해보라. 당신의 손놀림이 인격 살인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방송보도부장 겸 어른매체부장>

기고



문병훈

2012년 광주의 전략적 선택

에 임하는 광주는 늘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고 유권자를 내면의 치열한 모습을 끄집어내는 것 같다.

언제부터인가 광주는 선거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왔다. 권위주의 개발독재의 시대가 가고 민주화의 흔풍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광주는 한국정치의 중심임을 자부해왔고, 또 실제로 최고의 정치수준을 가진 도시였다. 광주는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한국정치를 이끄는 걸출한 지도자들을 배출함으로써 한국정치권력을 조정했고, 광주의 선택은 한국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던 도시였다.

과연 광주의 선택은 옳았을까? 먼저 지난 1980년부터 약 30년간 광주가 택했던 정치적 선택을 평가해 보자. 광주는 때로는 DJ에게 94%의 물표를 주고, 때로는 전남 출신의 행정한 정치인들을 치치고 부산출신 청양고주 정도의 자국이라고 할까. 선거

들었으며, 때로는 '손상님'의 옷깃만 스친 사람들도 공천만 받으면 그동안 고생했다며, 물지도 따지지도 않고 금배지를 달아주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광주는 그것이 바로 민주화의 길이고, 광주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이라는 신념을 선거를 통해 보여주었던 것이다.

결과는 어떤가? 광주의 경제상황은 침체 일로에 있다. 금남로에 있던 전남도청이 아무 대책 없이 무안으로 옮겨 간 것이 시작이었다. 남광주 시장, 대인시장에서 또는 총장로, 금남로에서 생업에 종사하던 수만 명의 시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동구는 공동화되었고, 광주는 행정도시, 교육도시로서 활기를 잃고 말았다. 광주는 변변한 주력산업 하나 없는 한국의 변방 전라도 광주일 뿐 전남을 이끄는 정치 경제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지위 조차 상실향하게 된 것이다.

30년 동안 군발 없이 뒷바라지해준 정치

인들의 모습 역시 초라하다. 광주가 그토록 애정을 보여온 민주통합당의 주도권은 이미 부산과 이화여대, 친노세력, 또는 전북출신 정치인들에게 넘어갔는데, 광주 혹은 전남지역에서는 이에 대항할만한 인물이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청별관 철거를 둘러싼 갈등에서도 드러나듯이 지역의 민심을 끌고 갈만한 정치적 구심점이 광주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광주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 자체 궁금하다. 관전 포인트는 단연 광주 서구를 지역구이다. 아원연대 전략지역으로 선정된 이 지역구에서 오방윤 통합진보당 후보가 한나라당의 호남대표인 이정현 의원과 자웅을 겨루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화 운동과 진보적 정치행보를 통하여 내공을 쌓아온 재야인사일까. 아니면 오로지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뛰어들다고 공언해온, 그리고 나를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새누리당 빙근대 표의 최측근일까. 광주의, 서구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바로 4월 11일이 기다리지는 이유이다.

<한국문화산업연구소 소장·철학박사>

온펜칼럼



류동훈

FTA, 농촌체험으로 정면돌파

켜, 결국 도시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게 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도 하락시킬 것이다.

한미FTA를 무효화 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개방화의 물결이라면 오히려 이를 국민 행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한다.

수입농산물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유통 기간이 길고 농약과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농산물을 소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통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활용해 단순히 가격이 아닌 먹을거리에 대한 '문화적 공감'이 함께한다면 충분히 국내 농산물의 소비를 늘릴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공감'을 위해서는 농촌체험활동과 도농교류협력사업들을 확대해야 한다. 광주만 보더라도 주말에 무등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무등산은 산행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 좋은 일이다. 지역 경제발전에 크

게 이바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농촌으로 찾아가 다양한 농촌체험 행사를 즐기면서 건강도 챙기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본인들이 참여해서 재배하는 좋은 농산물을 직거래로 구입할 수도 있으며 먹을거리에 대한 만족도 좋아진다.

또 이러한 농촌체험과 함께 문화관광지 답사와 함께 병행하면 지역 관광 산업도 살아날 수 있다. 거기에 다양한 지역 축제에서 좋은 문화공연과 함께한다면 금상첨화다. 실제 광주전남지역의 녹색농촌체험마을과 행복마을에서는 과일 따기, 감자 캐기, 벚꽃조개 캐기, 녹차 만들기, 강변자전거타기, 속초 만들기, 떡메치기, 도자기 만들기, 장승만들기 등 체험행사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고, 홍보로 민든 한옥도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전남지역의 녹색농촌체험마을과 행복마을들을 홍보하고 그곳에서 나는 농산물을 만든 요리를 체험할 수 있으며, 특산품도 구매하고 체험객도 모집하는 '녹색농촌체험홍보관'이 광주에 생기게 되면 광주전남 상생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지역 케이블 방송을 비롯한 방송국들은

KBS 1박2일 프로그램과 같은 예능 체험프로그램을 차단단체들과 협력해 시민참여 행사로 방송으로 만들어 송출하면 좋겠다. 다양한 농촌체험을 주제로 한 대종가요가 개발되어 보급되며 농촌체험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기아지동차, 삼성전자 등 수출산업 기업들도 FTA로 인한 수혜를 사회환원 하는 차원에서 농촌체험과 '녹색농촌체험홍보관'을 지원하여 함께 참여한다면 지역민들의 사랑도 깊을 것이다.

한미 FTA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도시민들과 농민들이 적극 협력하여 지역 경제도 살리고, 건강도 챙겨 행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지혜와 실천에 마음을 모아 정면 돌파를 해나가자.

<사회적기업 행복문화사업단장>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무등산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가르치자

에 속했던 곳이고 백제 때에는 무진주가 되었으며 통일신라 때에는 무주로 불렸다. 후백제를 일으킨 견훤도 무진주를 수도로 정하였다. 무진주나 무주나 하는 것은 모두 무악(무등)에서 연유된 것이다.

따라서 무등산은 무악, 무진악, 서석산, 입석산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광주의 진산인 무등산이 바로 삼국시대 무악으로 불려

왔던 것이다.

육당 최남선은 무악의 뜻은 무뚝뚝, 무단하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것, 또는 두루뭉술하게 생긴 산 형에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무등의 참뜻은 불교의 반야심경에서 나온 무등등이며, 부처님의 깨달음은 절대 평등한 것이고 높낮이가 없는데서 일축된 것이다.

무등산 정상에 올라가면 3개 봉이 있다. 현재 천왕봉, 인왕봉, 지왕봉으로 부르고 있는 데 천왕봉, 인왕봉, 지왕봉으로 명명했으면 한다. 계룡산에도 속리산에도 3개씩 봉이 있

는데 전부 천왕봉, 인왕봉, 지왕봉이라 한다.

여기서 삼황이란 신라때 김인문(문무왕의 동생) 저서에 天皇(太昊 伏羲氏 BC 3087년) 人皇(黃帝 神農氏 BC 2902년) 智皇(炎帝 軒轅氏 BC 2877년)이라는 기록이 있고, 三皇은 三皇五帝에서 유래된 것으로 되어 있다.

天王은 불교에서 육계와 색계에 있다는 하늘의 왕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무등산 정상 3봉을 天皇峰, 人皇峰, 智皇峰으로 표시하여야 옳은 이론이라 사료된다.

▲김상원·광주시 서구 치평동

시설

시늉으로 끝난 새누리당 호남 인재 발굴

새누리당의 4·11 총선 지역구 후보 공천과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호남 인재 발굴론'이 구두선(□頭禪)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다. 호남 지역구 공천에서 후보를 낸 곳이 절반 수준에 머물고,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서도 단 1명에 그치는 등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새누리당 공천 결과 호남 30곳 중 후보를 낸 지역구는 17곳으로 56.7%에 불과했다. 광주는 8곳 중 6곳, 전남은 11곳 중 3곳, 전북은 11곳 중 11곳이 무공천 지역구로 남아있다. 지역별 신청자는 광주·전남북에서 모두 24곳, 36명이다. 그럼에도 17곳 공천에 그친 것은 여당이 호남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 선정도 마찬가지다. 46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당선권이 20위 안에 주영순 목포상의 회장을 6번으로 배정했을 뿐, 이 지역 인물은 찾아볼 수 없다. 광주·전남 출신 신청자가 20명

인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여당의 호남 흘대는 박 위원장이 밝힌 입장과도 배치된다. 박 위원장 스스로 관호를 풀고 조정도문회에서 '호남 흘대는 천부당민부당한 말이며, 호남 인재를 적극 발굴해 떠나 드리려 한다'고 밝히지 않았던가.

박 위원장 입장 표면뿐만 아니다. 여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호남자별 철폐를 강조해왔다. 지난 2010년 당시 안상수 대표는 호남지역 간담회에서 '호남 현안에 대해 200% 지원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 역시 말 뿐이었다. 그가 대표로 있던 시절, 모든 이 지역현안은 차질을 빚기 일쑤였다.

여당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 지역에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지역 인재를 발굴,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일

이야말로 지금 여당이 호남인의 신뢰를 회복하고 두자릿수 득표를 할 수 있는 철경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흥 '천경자전시관' 관리 소홀로 문 닫다니

고흥군에 조성됐던 천경자전시관이 개관 4년 여만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고흥군이 작품에 대한 관리 소홀로 천경백 측과 1년 넘게 갈등을 빚으면서 작품 66점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고흥 출신으로서 근대 한국화의 대표적인 여성화가 전시관이 당초 성원과는 달리 문을 닫게 돼 큰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2007년 11월 1일 개관한 천경자전시관은 천경백이 기증한 드로잉(55점)과 판화(11점) 등 66점의 작품이 상설 전시되면서 지방에서의 우수한 문화 공간으로 한껏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전시실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가게 된 건 무엇보다 고흥군의 책임이 크다.

천경백 측의 저작이 있다. 오히려 고흥군이 '작품을 인도받은 뒤 작품 상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란 합의문 초안을 천경백 측에 보낸 것만 봐도 작품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알해준다.

기증자의 작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훼손되는 지경이라면 반환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고흥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식이든 자유로울 수 없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어 지은 전시관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게 아닌가.